

제주 도련일동 감귤농장 및 창고

현황 사진

위치 및 지형

건물의 배치 및 현황

건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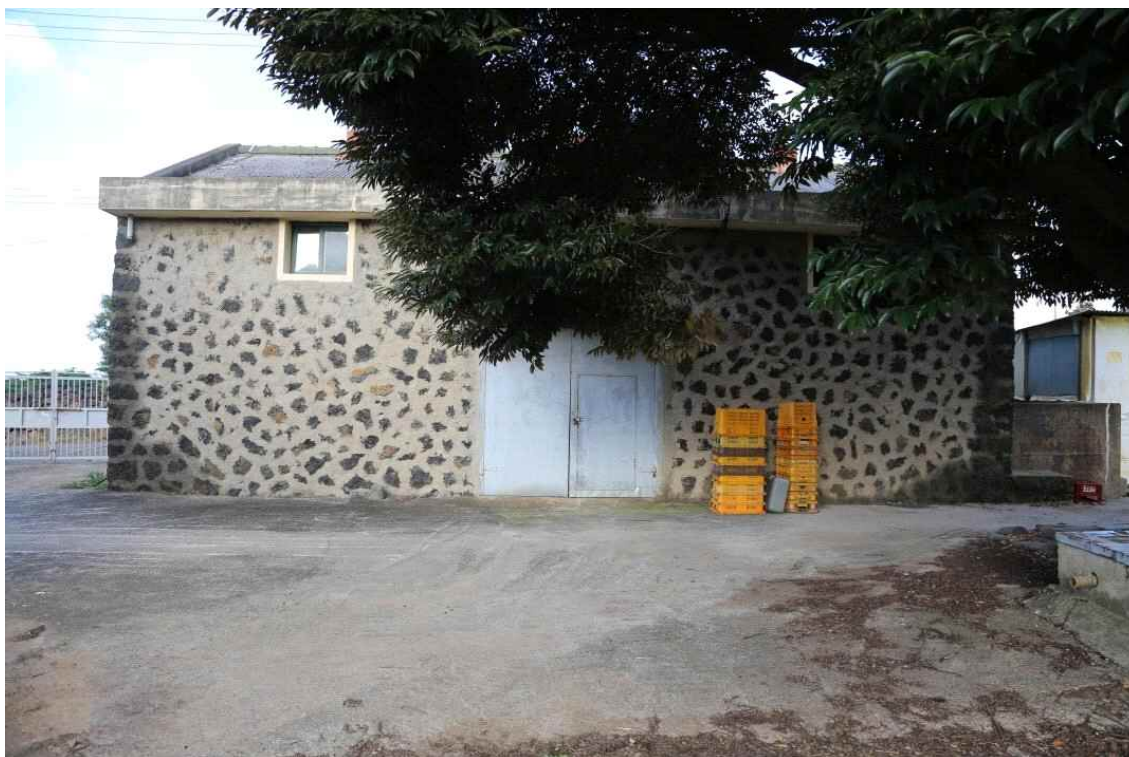
연혁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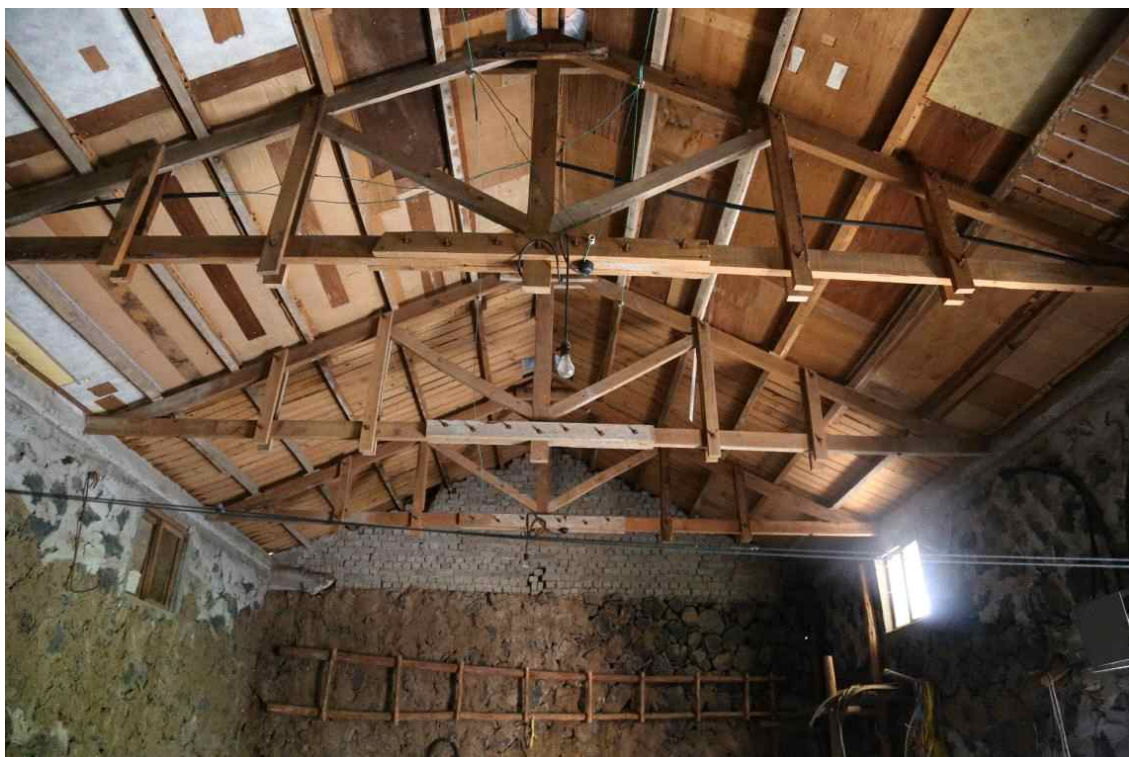
1. 현황 사진













[제 주 도련 일 동 감 굴 농 장 및 창 고] 조 사 보 고 서



본 건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다. 본 건물은 1980년 사용 승인된 감굴창고이다.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되는 시기에 지어진 돌 창고이다.

1. 위치 및 지형¹⁾

1) 제주시 홈페이지 지명 유래집 참조
(<https://www.jejus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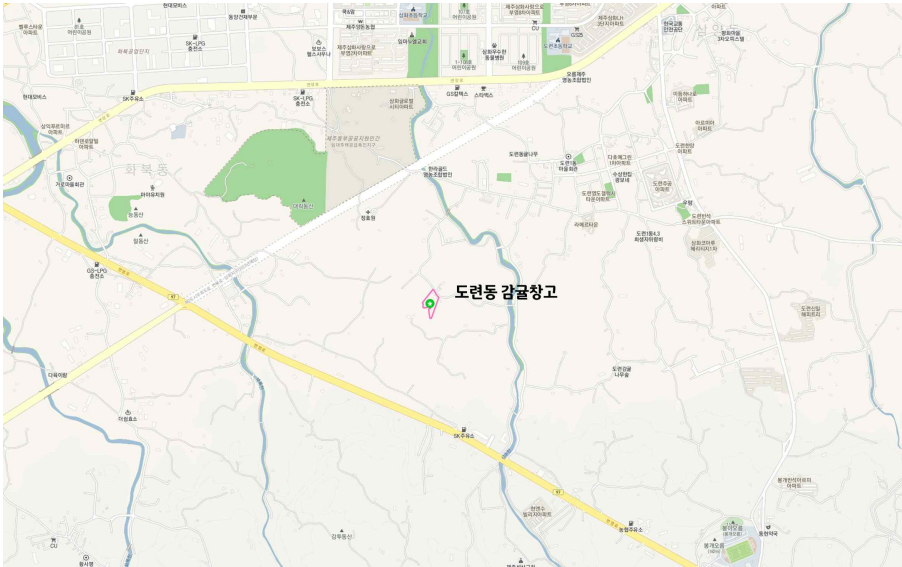
도련동 감굴창고 건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657(도련남6길 60)에 있다. 감굴창고가 위치한 도련동은 옛부터 도련리라는 명칭은 당초 물형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연화도수형이라 하여 도련이라 하였고 그 후 인구가 증가 되면서 사면이 부락이 형성되어 동쪽으로는 회천, 남쪽으로는 봉개, 용강, 영평, 서쪽으로는 거로, 북쪽으로는 화북, 삼양이 연하여 중심에 있음으로 사통오달로 길이 이어 도련이라 개명하였고 도련드르라 함은 동쪽은 당카름 서평대 매춘 병디, 남당지 북은 상근이 머르로서 토질이 비옥하고 오곡이 풍성함은 물론 주거지도 평온하여 인근 부락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드르²⁾라 불렀던 지역이다.

2) 드르‘들’의 방언 (제주)

본 건물 인근에는 오래된 굴나무가 집단적으로 남아 있어 과거 조선 시대 굴 재배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와 제주감굴협동조합 모수원 도련시험지가 있다.



도련동 감굴창고 파노라마



도련동 감굴창고_위치도

2. 건물의 배치 및 현황

제주도의 대표적 농사였던 감귤을 재배하던 제주의 감귤농장 창고이다. 창고는 도련남6길이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도련동 굴나무류와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있고 북쪽으로는 도련감귤나무숲이 있다.

대상 창고의 토지에 부속된 시설은 블록조 49.5㎡의 창고와, 6㎡의 저수조, 월 300톤 규모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 농업용수, 상수도,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 아울러 굴밭 주위에는 다양한 정원수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구조와 형태를 옛것 그대로 유지하며 제주의 향토적 정서를 품고 있다. 과거 제주 초가의 창고처럼 작은 규모를 막돌로 지었던 것에 비하면 본 도련동 감귤창고는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넘어가는 과도기 전형적인 창고 모습이다.



도련동 감굴창고_전경



도련동 감굴창고_전경

3. 건축적 특성

본 감귤창고는 건축물대장에 1980년 12월 24일 사용승인으로 기재된 창고이다. 이 시기의 창고건물 중 건축물대장을 드물게 가지고 있는 창고이다. 15,000㎡ 감귤밭에 맞는 대규모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5㎡의 돌 창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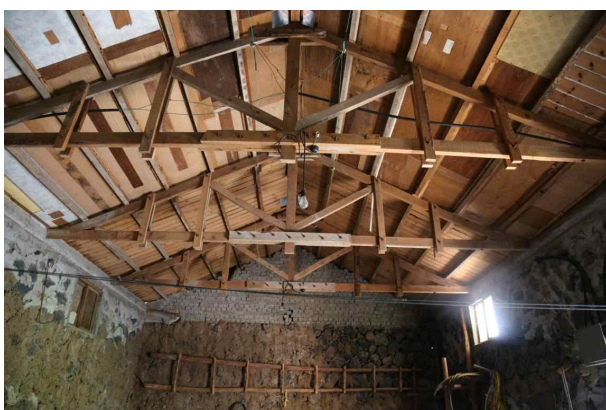
과거 제주 초가의 창고처럼 작은 규모를 막돌로 지었던 것에 비하면 본 도련동 감귤창고는 큰 규모의 대규모 저장고이다. 1980년대 이전 제주에서 보기 힘든 규모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넘어가는 과도기 전형적인 창고 모습이다. 제주석 깬돌로 외부에 시멘트를 바르고, 내부에 흙을 발라서 일정 높이까지 쌓은 후 좌, 우측면 박공 부위를 콘크리트 인방으로 보강 후 그 위에 시멘트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드는 전형적인 1970년대 말 당시 창고 구축방식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도련동 감귤창고_외부



도련동 감귤창고_외부



도련동 감귤창고_내부



도련동 감귤창고_내부

4. 연혁

제주도 감귤창고의 역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4년 제주도 연두 방문 시 감귤 진흥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을 지시 이후 정부의 특별 지원을 계기로 1965년부터 재배 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부터 감귤 증식 사업을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책정하여 저리 용자로 감귤원 조성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다. 한편 육묘업자를 육성하여 감귤 묘목 생산을 장려하였으나 육묘 업자의 생산 묘목만으로는 연간 수요량 200만여 본을 충족시킬 수 없어 일본산 묘목을 재일교포 기증으로 대량 도입하여 수요를 충족 하도록 하였다. 그전까지는 소규모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1972년부터 예산지원이 되기 시작하여, 창고에 지원이 된 것은 1970년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련동 감귤창고 내부



도련동 감귤창고 측면

5. 활용방안

감귤창고와 부속 건물은 감귤재배와 함께 복합문화공간, 갤러리카페, 예술 공방 등 문화 예술 공간 및 감귤 체험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혹은 조용하고 여유롭게 제주를 여행하려는 젊은 층,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굴밭 주위에는 다양한 정원수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느린 시간여행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여행하기 좋은 제주도의 특성상 도시, 농촌지역 어느 곳이든 관광객이 넘쳐나는 특수한 여건 탓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개요서

문화재명	제주 도련일동 감귤농장 및 창고
문화재지정별	비지정
소재지	제주 제주시 도련남6길 60(도련일동)
연면적	대지 4,382㎡ / 건축 114.5㎡ / 돌 창고 65㎡, 블록 창고 49.5㎡
건물 수량	2동
분류	창고
주요 구조	잡석조
주용도	창고
주요외장재	시멘트 블록, 제주석
지붕재	슬레이트
창호	목재 / 유리
건립연도	1980년 사용승인
활용방안	갤러리카페, 예술 공방 등 문화 예술 공간 및 감귤 체험공간



